

온몸으로 깨달아야 '증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제1강부터 제3강까지 믿음, 이해, 실천행에 대해서는 좋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바른 증득證得에 대해서입니다.

증證을 해석 하면 '증득한다', '증험證驗한다'는 말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증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가 증득의 세계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외도가 찾아와서 "대사 문이시여 당신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이상 경지는 니르바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르바나가 무엇입니까. 또 니르바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증에 대해서 묻는 것하고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기를 "당신의 질문은 니르바나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외도가 나가려고 하니 곁에 있던 사리불 존자가 "바라문이어 우리 위대한 대사문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니 바라문이 묻습니다. "그러면 니르바나가 뭐니까?"

사리불 존자가 명쾌하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 타다가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꺼지는 것을 적멸이라 하고 니르바나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도가 다시 물기를 "니르바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 사리불 존자가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을 끄면 그 불이 어디로 가느냐"고 되묻습니다.

사라진 불꽃을 왜 찾습니까. 배를 타고 건넌다면 되겠지 왜 메고 갑니까? 아직 내 생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구어 어떻게 만들어져있는가'라는 등의 고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면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득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절에 들어가서 등을 만드는데 철사부터 종이, 연잎까지 접어서 풀어서 말리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다했습니다. 등하다가 스님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써요. 어린마음에 스님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왜 부처님 혼자 높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아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스님께서 "일체중생에게 하는 말이다. 일체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표현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교 아당안지' 이 단어는 불교가 있어야 하는 존재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지

니고 있는 불성을 이야기 합니다. 이 선언을 지금 이야기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는 사성계급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평등선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고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네가 곧 부처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증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육체 색계 무색계는 다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는 말은 원래 부처임을 확인시켜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 종말은 불교와 관련 없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합니다.

금이 어디서 나오니까? 광석에서 나옵니다. 광석을 금이라 하지 않아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면 다 녹고 금이 나옵니다. 제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금은 흙 속에 넣어도 금이에요. 여러 분들도 수행을 하려면 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명의 구름을 벗기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종정이 되어서 종정추대식에 나가지 않으시고, 법문하나 보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철 스님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가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보면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쓰다 보면 헛 것도 보입니다. 공부하다보면 상기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흔적입니다. 산이 물 되고 그 것이 다시 산이 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단적으로 공부를 해서 마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이치에 가장 적응을 잘 하는 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빈 배같이 물결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자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부처님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자기 생각이 최고인양 유추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 사비분별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첫째 조건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확고하게 의심없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수행의 점자를 이야기 합니다. 화엄경 오십이점자가 있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덕산 스님이 계셨는데 이 분이 남행을 합니다. 어느 절 밑에서 떡 파는 노인을 만나니 덕산 스님이 시장끼를 느꼈어요.

"노 보살님 떡 좀 파세요."

"결망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강경입니다. 내가 금강경에 통달해서 주공금이라 합니다"

"스님.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면 떡을 공짜로 주고, 답을 못하면 떡을 안 팔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스님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에 점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꿈 해몽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날카로우면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질문이 좋아야 대답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날카롭게 하려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천하의 주공금 스님이 어떤 마음에 점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힘이 싹 빠졌습니다.

"스님 떡 드시지 마세요. 이 위의 암자에 응답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로 찾아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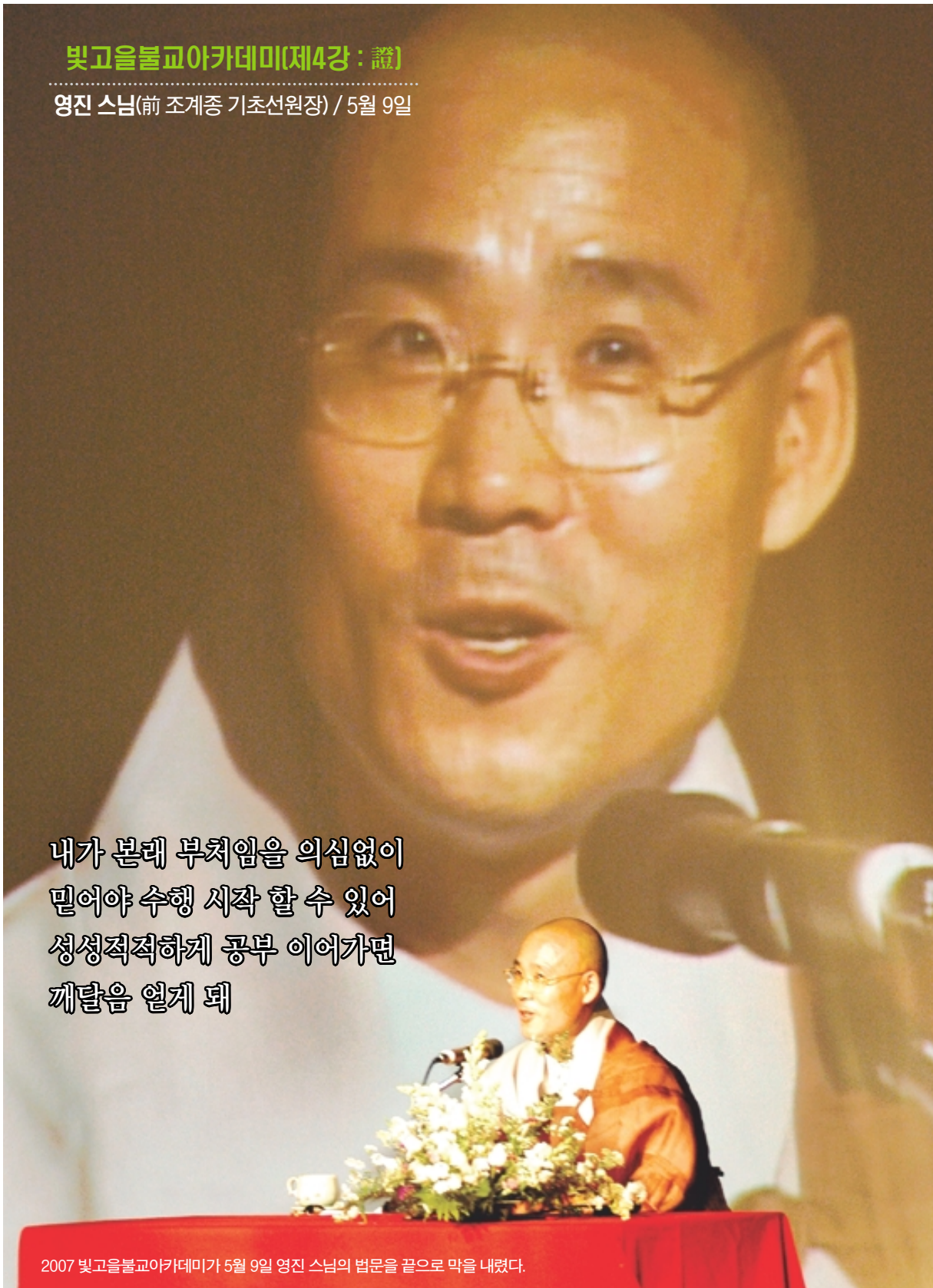
힘이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가다가 도랑에 들어서서 응답 스님을 찾았습니다.

덕산 스님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응답 스님이 등불을 비추주었습니다. 덕산 스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 응답 스님이 훅 불어서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더 안 보이죠. 그 참에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찾으려고 하다 불을 꺼줄 때 덕산 스님이 완전히 깨달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금강경 소초를 마당 가운데 놓고 불질러버립니다. 그동안 외우는 데만, 해석하는 데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임제 스님과 쌍벽을 이루던 덕산



빛고을불교아카데미 티셔츠를 구매하는 불자.



빛고을불교아카데미(제4강 : 證)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 5월 9일

내가 본래 부처임을 의심없이 믿어야 수행 시작 할 수 있어 성성적적하게 공부 이어가면 깨달음 얻게 되

2007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5월 9일 영진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스님입니다. 점차수행이 억겁다생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남방으로 가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덕산 스님에 대한 경계를 응답 스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때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소씨 동파라는 것은 호입니다. 이분은 위치가 태수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불교에 눈을 떠가지고 부임하는 곳마다 스님을 찾아뵙고 문답을 했습니다. 많은 스님이 팔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호 선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서로 상견례를 하고 앉아있는데 승호 스님이 "시주께서는 성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저는 썩(침)입니다." (저울치자입니다. 스님을 저울질 하러 왔습니다) 승호 스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동파가 놀랐습니다. "그래 칭가라 하는데 이 역소리가 몇 근이나 나왔소?" 물었습니다.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몇마디 안했잖아요. 공부를 하면 번개처럼 빠릅니다. 소동파도 그렇게 해서 승호 선사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조계종 종현의 전문에 보면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어떤 참선을 하느냐..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것을 정통수행법으로 합니다. 화두를 드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대신근이요, 큰 믿음의 뿌리.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고히 믿고, 다음에 스승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 선지식이 제시한 것을 참구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대의단이요, 큰 의심입니다. 만공 스님께서 결계법문을 하실 때 일입니다. 꼬마가 범당에 끼웃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공 스님이 너 몇 살이나. 다섯 살이예요. 다섯 살 전에는? 네 살. 네 살 전에는? 세 살. 이렇게 하다가 한 살 전에는? 이러니까 꼬마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만공 스님께서 이번 결계 법문을 이것으로 마치노라 하였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용맹입니다. 용맹심을 발하라. 하다보면 안됩니다. 그럴 때는 용맹심, 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맛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전 심분, 깨어나서 심분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삼십분씩 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앉아있는 가운데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적적이고 화두를 또렷하게 드는 것을 성성이라 합니다. 성성적적하게 공부를 면밀히 이어가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2006 대한민국 여성수장도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프트&패션드 선정(스포츠서울)
특별한 특별한 및 상품성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 수 특 별 안 선 물
마 · 그 · 토 · 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라이트 자기발을 첨가하고
음이온이 생성되는 투르말린 실리코멘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획한
아이디어 유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루고 혹은 아니셜 색인 가능
단 제품은 인공절 줄이나 자물쇠가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어)-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www.magtorin.com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